

❖ 정교회, 개신교, 카톨릭 교회의 주요한 특징들의 비교

	정교회	개신교	카톨릭
사도권의 계승	그리스도를 기초로한 교회라는 인식과 더불어 이 교회가 사도권을 계승 한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성공회와 몇몇 루터교들을 제외하고 사도권의 계승이라는 개념을 거부한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 사도들을 계승하는 사도권이라는 개념은 없다.	정교회와 매우 흡사 하며 오히려 같은 측면이 더 많다.
성경	39권의 구약성경과 27권의 신약성경을 인정하고, 더불어 구약성경에 포함되지 않는 권위있는 책들을 성경의 지위로 인정 한다.	정교회와 카톨릭에서 받아들이는 66권 이외의 책들을 외경이라 부르며 거부 한다.	정교회와 같다.
성직자의 자격	사제 Priest와 주교 Bishop 은 반드시 남성 이어야한다. 하지만, 집사 Deacon들은 여자들도 될 수 있다. 사제와 여자 집사들 간의 결혼은 허락이 되지만, 이 결혼은 사제들의 안수 이전에 가능하고, 사제 안수를 받은 이후에는 결혼을 금한다. 사제 가운데에서 주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독신 으로 살아야한다.	대부분의 개신교회는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 독신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많은 개신교회들은 여자에게도 안수 를 주고 있으며 심지어는 성공회 사제도 여자가 있다. 하지만, 여자가 감독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개신교 내에서도 논의가 진행 중이다.	모든 성직자들은 남자 여야 한다. 사제와 주교는 반드시 독신 이어야한다. 그러나 동방교회나 성공회에서 카톨릭으로 개종한 성직자 가운데에서 이미 결혼을 한 성직자가 있다면 그들의 결혼은 인정해 주고 있다.
성만찬의 중요성	흔히들 신비로운 만찬 Mystic Supper 또는 신성한 예전 Divine Liturgy 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성찬식은 현재 그리스도를 희생하는 예전 이며 성만찬을 통해서 죄를 용서 받을 수 있다. 동방교회는 성만찬이 부활한 그리스도와 의 만남이라고 생각한다.	세례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듯이, 성만찬도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성만찬을 할 때마다 그리스도가 희생하신다는 정교회와 카톨릭의 신학을 반대한다.	정교회와 비슷하다. 카톨릭에서는 성만찬을 거룩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예전 Holy Sacrifice of the Mass 이라고 부른다.
성만찬 중의 그리스도의 입재	성만찬 동안에 사제는 빵과 포도주에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에 사용된 빵과 포도주는 입재의 기도 이후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 이것은 신성한 신비이다.	성찬에 사용되는 빵과 와인은 상징일 뿐 , 그것이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성공회의 경우는 카톨릭과 흡사하게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주장한다.	정교회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임재를 간구한다. 그러나 성만찬의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마치 그리스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제에 의해서 가능하다.
성만찬 분급	거룩한 빵과 포도주는 오직 정교회 교인들만 이 먹을 수 있다.	빵과 포도주는 세례를 받은 기독교인이라면 교파와 관계 없이 (정교회, 카톨릭 교인) 모두 가 먹을 수 있다. 대부분의 개신교 교회들은 빵과 포도주 모두를 먹는다.	오직 카톨릭 교인들만 먹을 수 있다. 회중에게는 빵만 주고 포도주는 사제가 마신다. 그러나 요즘에는 빵과 포도주 모두를 먹게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성령	제 삼위로 니케아 공의회에서 결의된 대로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 성부 하나님은 성령을 성자의 중재자로 보낸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성자는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의 인간의 중재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 모두 로부터 나온다.	개신교의 입장과 동일 하다. 밀란의 암브로시우스 (340-397)는 성령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올 때에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독립적일 수 없고 나뉘어 질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결혼과 이혼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신비로운 연합 이다. 이혼은 배우자가 간통하였을 때만 허락된다.	결혼은 계약이다. 그러나 깨지지 않는 계약은 아니다. 이혼을 장려하지는 않지만, 인간이 가진 나약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허락한다. 어떤 종파의 경우에는 재혼을 교회에서 하는 것을 허락하기도 한다.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처럼 깨질 수 없는 계약 이다. 이혼은 허락되지 않지만, 결혼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만큼의 가정생활에 큰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는 허락되고, 이런 경우 사제는 결혼 무효선고 를 한다.
마리아 승천설과 무원죄 잉태설	마리아가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였고 승천하였다는 것은 인정 한다. 그러나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순간 원죄가 사라졌다는 무원죄 잉태설은 거부 한다. 정교회는 원죄가 다음 세대로 전해진다는 신학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굳이 원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관심가질 필요가 없다.	둘 다 거부 한다. 마리아는 사람일 뿐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개신교 중에서 루터교는 무원죄 잉태설을 인정한다.	이 둘 모두를 인정 한다. 그러나 카톨릭 안에서도 마리아가 실제로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정하지 못했다.
마리아의 위치	마리아는 테오토코스(하나님을 품은 자)로서 승배의 대상 이다. 마리아는 평생을 동정녀로 살았던 최초의 성인 이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거룩한 여인이었다. 마리아가 평생을 동정녀로 살았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 역할 한다는 사상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정교회와 같이 테오토코스 사상이 있다. 또한 성모발현 을 인정한다.
교황의 권위	로마의 주교 로 존경을 받는다. 그러나 전체 정교회에 대해서 관할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교황의 권위는 정교회의 다른 교구의 주교와 마찬가지로 여긴다.	카톨릭 교회의 대표 로서의 권위를 인정한다. 개신교회에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	교황은 그리스도의 목자 라는 권위를 가진다. 지상교회의 눈에 보이는 지도자로서 베드로의 영적인 계승자 이다. 카톨릭 세계에 최고의 권위를 가진 지도자 이다.
교황 무오설	교황 무오설을 거부 한다. 교회를 진리의 길로 이끄는 것은 성령이다. 정교회에서는 325-787년 사이에 열린 일곱 번의 공의회에서 결의된 사항들에 오류가 없다고 믿는다.	교황 무오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오한 유일한 것은 성경이라고 본다.	성령이 함께 하는 한, 교황은 무오하다. 교황은 믿음의 교리를 확정하고 모든 카톨릭 교회가 지켜야할 도덕적인 규범들을 공포한다.
연옥	연옥을 지상과 천국의 중간적인 형태로 이해 한다. 그러나 연옥의 상태에서 정화나 죄사함을 받는다고 믿지 않는다.	연옥을 거부 한다.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이들의 죄를 사하는데 충분하다고 믿는다.	자기를 정화하고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잠시 머무는 장소 로 본다. 임종 이전에 미처 죄사함을 받지 못한 가벼운 죄들을 용서받는 곳 이기도 하다.
성례전	일곱개의 성례전 이 있다: 영세(세례), 성체성사(성찬), 견진성사(Chrismation-개인적인 견해로는 입교와 비슷), 고해성사, 결혼성사, 신품성사, 증유성사.	세례와 성찬만 이 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개신교의 입교예식이 정교회나 카톨릭의 견진성사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정교회와 동일 하게 일곱개의 성례전이 있다. 특별히 견진성사를 정교회에서는 Chrismation이라고 하는데, 카톨릭에서는 Confirmation이라고 부른다.
성례전의 결과	신비로운 은혜가 성례전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미친다.	교파마다 매우 다양하게 성례전이 미치는 영향과 결과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럼에도 많은 개신교회들은 성례전을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 다시 기억하는 상징적인 행위 로 여긴다.	정교회와 같은 견해 를 가지고 있다.
성인	승배받을 만한 특별하고도 거룩한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와 같은 역할을 하며, 기도 가운데에서 이들의 이름이 거론 된다.	성인들을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이라고 받아들인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정교회와 같다. 성인으로 추대되기 위해서는 추대 되어진 사람이 중재가 되어서 일어난 두가지 이상의 증명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야한다.
구원	사랑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믿음 을 강조한다.	교파마다 워낙에 다양하다.	세례를 통하여 은혜로 구원 에 이르고, 성례전(은혜의 채널) 을 통해서 구원이 유지된다.
성경의 중요성	전통 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 전통 안에는 성경과 더불어 성인들의 기록과 공의회에서 결정한 기록 들을 포함한다.	오직 성경 이 유일한 개신교 믿음의 유일한 기준으로 본다.	거룩한 성경과 거룩한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이 성경과 전통은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 해석된다. 그러므로 성경, 전통,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Magisterium) 이 신앙의 기준이다.
예배와 예전	거룩한 예전이 정교회 예배의 중심이다. 예배는 그리스어로 진행 되나, 일반적으로 각 나라나 지방의 고유 언어로 진행된다.	워낙에 다양하다.	예배가 미사의 중심이다. 여전히 라틴어 미사가 드러지고 있지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로 각 지역의 언어로 미사가 드러진다.